
「유럽의 문화, 환경관리, 자전거 정책 등 벤치마킹」을 위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1. 9. 28 ~ 10. 6(7박9일)
- 방 문 국 : 서유럽(영국, 이탈리아, 스위스,프랑스)
- 연 수 단 : 14명(의원10명, 공무원4명)

2011년 10월 일



구 미 시 의 회

공무국외연수개요

1. 연 수 국 : 서유럽(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2. 연수배경

- 선진 유럽의 앞선 지방자치 정책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발전된 부분에 대해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하여
- 현재 구미시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우리시정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 도입 및 현안문제 해결점을 모색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및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11. 9. 28 ~ 10. 6 <7박 9일>

4. 보고서 작성자 : 이수태 의원 외 13명

5.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1	기획행정위원회	김 상 조	8	산업건설위원회	박 주 연
2	”	김 익 수	9	”	윤 중 호
3	”	김 춘 남	10	”	이 수 태
4	”	박 세 진	11	전 문 위 원	남 동 수
5	산업건설위원회	김 재 상	12	직 원	박 영 수
6	”	김 정 미	13	”	유 태 란
7	”	김 정 곤	14	”	박 상 진

공무국외여행 보고 목차

I. 연수개요

1. 연수의 목적	3
2. 연수세부내용	3
3. 연수국 및 주요방문지	3
4. 연수일정	4

II. 본 론

1. 방문국 소개	5
2. 주요방문지	21
3. 분야별 벤치마킹	31
• 자전거 정책분야	31
• 문화로에 도입 가능한 문화	34
• 하수 처리장 운영분야	35
• 교통 및 도시경관분야	37

III. 결 론

40

IV. 수집자료

42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서 론

1. 연수의 목적

- 외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강화되는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외 선진도시의 문화, 관광,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걸 맞는 시정발전방향과 의회운영 방향 감각을 모색하고
- 관광자원 활용 및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전략을 견학하여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2. 연수세부내용

- 기 간 : 2011. 9. 28(수) ~ 10. 6(목) 7박 9일
- 참여인원 : 14명 (의원 10/ 직원 4)

3. 연수국 및 주요 방문지

- 영 국 : 런던
 - 버킹엄 궁전, 런던시청, 대영박물관, 타워브릿지, 빅벤
- 이탈리아 : 로마, 피렌체, 밀라노,
 - 로마시청, 성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광장
 -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미켈란젤로 광장, 두오모 성당
- 스 위 스 : 인터라켄, 베른
 - 융프라우, 운터젠 시, 바젤시
- 프 랑 스 : 파리, 마르나 발레시
 - 파리 국립도서관, 마르나 발레시 하수처리시설
 - 에펠탑, 개선문, 상제리제 거리, 세느강변

4. 연수일정

날 짜	연 수 일 정	비 고
제1일 9/28(수)	인천 → 런던공항	
제2일 9/29(목)	- 런던시청 방문 - 런던의 문화재 보관실태, 도시환경 비교 시찰 - 영국의 의회 운영제도 견학 - 런던공항 → 로마공항	영 국 런 던
제3일 9/30(금)	- 로마시청 방문 - 시 관광산업에 대한 설명 청취 - 문화로 적용가능한 조형물 벤치마킹 - 토론회 개최	이탈리아 로 마
제4일 10/ 1(목)	- 다중집합 시설 운용실태 벤치마킹 - 시노리아 광장과 미켈란젤로 광장의 다중집합시설 - 토론회 개최	이탈리아 피 렌 체 밀 라 노
제5일 10/ 2(금)	- 스위스 농축산업 및 자연보존 체험 - 융프라우 등정 시 산악열차 활용실태 - 자연보존실태 체험	스 위 스
제6일 10/ 2(금)	- 운터젠 시청 방문 - 시 조직 및 현황, 정책 등 청취 - 파리의 야간경관조명 벤치마킹	스 위 스 프 랑 스
제7일 10/ 2(금)	- 마르나 발레시 하수처리시설 방문 - 파리 국립도서관 방문 - 도서관 시찰 및 운영상태 견학	프 랑 스
제8일 10/ 2(금)	- 도심 랜드마크 및 도심시설 견학 - 개선문, 콩코르 광장 견학 - 프랑스 드골 → 인천공항	프 랑 스
제9일 10/ 2(금)	프랑스 드골 → 인천공항	

II. 본 론

1. 방문국 소개

① 영 국

유럽으로부터 독자적 자존심을
유지하는 영국

- 인 구 : 약 6,113만명
- 수 도 : 런던
- 면 적 : 243,610km² (한반도의 1.1배)
- 주요언어 : 영어
- 통 화 : 파운드(£)
- 시 차 : 한국보다 9시간 늦음



가. 일반현황

1) 개 요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과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 본토의 북서쪽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 국토의 동서의 연장은 500km, 남북의 연장은 1,000km이다.

영국과 가장 가까운 유럽 본토의 국가들은 프랑스와 벨기에다. 영국은 북위 50도와 6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인 런던은 베를린, 밴쿠버, 바르샤바와 동일한 위도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의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여덟 번 째로 큰 섬이다. 이 섬은 일본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와 거의 동일한 크기이고 아이슬랜드나 쿠바의 두 배의 크기이다.

영국은 동시베리아와 같은 정도로 북극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기후는 동 시베리아보다 더 온화하다. 영국의 기후가 변덕스럽기는 하지만 기온이 섭씨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섭씨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와 북부와 산악 지대이다.

영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공업국이지만 농경지가 많고 잉글랜드의 약 15.6%가 국립 공원들이나 자연 보존 지역들이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의 국립 공원들이나 자연보존 지역들의 비율은 각각 영토의 4%, 13%, 20%이다.

2) 기 후

영국은 한국보다 약 1,400 킬로미터(900 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로 둘러싸여 기후가 온화하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고 날씨가 자주 변한다.

1 월 평균 기온 - 4.1도

7 월 평균 기온 - 16.4도

연평균 강수량 - 북부와 동부의 산간 지방에서는 1600mm(60인치) 이상. 중부와 동부에서는 800mm(30인치) 이하.

비는 연중 고르게 내리지만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건조한 시기이고 9월부터 1월까지가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3) 인 종

영국의 최대 인종집단은 잉글랜드인이며, 스코틀랜드인·아일랜드인·웨일스인도 전체인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50년대초 이후에는 영연방국가들, 특히 인도·서인도제도·파키스탄 등지에서 몰려온 이주민들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4) 의 회

영국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한다. 하원은 각각 하나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659명의 선출된 의원, 즉 MP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정부는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발의된 모든 법안에 대해 논쟁을 벌임으로서 하원은 정치적 환경과 새로운 의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상원은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상원은 세습 의원들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아 임명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발의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상원을 보다 민주적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원으로 만들기 위해 상원을 단계적으로 개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5) 정부기관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Her Majesty Government(HMG)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국가 사안들을 책임지는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하원(House of Common) 소속이지만 그 중 몇몇은 상원(House of Lords) 의원이다.

총리는 내각의 수장이며, 장관의 임명 및 면직 권한이 있다. 내각은 20여명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들은 대부분 내각 소속이다. 장관들의 직위는 대부분 "Secretary of State"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외무장관의 경우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 Commonwealth Affair"이다. 몇몇 장관들은 다르게 불리는 경우도 있으며, 재무장관의 경우 "Chancellor of the Exchequer"로 칭한다.

내각에는 부처 없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들도 있다. 각료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록 또한 비밀로 부쳐진다.

나. 주요 문화 유적지



◆ 런던 ◆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제국의 심장이었던 런던은 여전히 유럽에서 규모가 큰 도시 중 하나다. 빈부, 전통과 현대적인 낭만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조화되어 있는 점이 런던의 특징이다.

1) 버킹엄 궁전 (Buckingham Palace)



1837년 빅토리아 여왕 이래 영국 왕실의 주거지가 된 버킹엄 궁전은 원래 버킹엄 공작의 집으로 만들어졌다. 1762년 왕실에서 이 집을 매입해서 증·개축을 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궁전 앞 광장에는 금빛 천사를 조각해 얹은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가 있는데, 이 기념비는 빅토리아 당시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여왕이 궁전에 있을 때는 정면 중앙에 왕실 깃발인 로열 스탠더드가 나부낀다. 지난 1993년 8월에 처음 일반에게 공개된 이래 매년 2개월만 공개되고 있다. 버킹엄 궁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위병교대식이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부터 더 몰을 따라 버킹엄 궁전으로 행진하는 위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궁전 정문의 남쪽에 있는 퀸스 갤러리 (Queen's Gallery)에서는 왕실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2) 타워 브리지 (Tower Bridge)



1894년에 완성된 빅토리아 양식의 우아한 이 다리는 길이가 270m로 대형선박이 통과할 때 수압으로 다리를 올리는데 八字 모양이 된다. 탑안에는 다리의 구조와 런던다리의 역사가 전시되어 다리위에 놓인 유리로 된 육교에서 런던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3) 영국 박물관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



1759년 한스 슬론이 남기 슬론 컬렉션에 왕실의 소장품을 추가하여 대영박물관이 탄생했으며, 1824년 20년 세월을 걸쳐 현재의 건물로 증·개축되었다. 안에는 고대 이집트, 아시아 그리스, 로마시대 등 동서고금의 수많은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로제타스톤, 미이라, 마그나 카르타 등은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다.

② 이탈리아

고대 역사와 최첨단 유행이 공존하는 나라 이탈리아

- 인 구 : 약 5800만명
- 수 도 : 로마
- 면 적 : 301,230km²(한반도의 1.5배)
- 주요언어 : 이태리어
- 통 화 : 유로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가. 일 반 현 황

1) 개 요

이탈리아는 여자, 예술, 역사가 아름다운 곳이며, 많은 매력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 이탈리아 작가 루이지 바르찌니는 이탈리아 매력을 “이탈리아는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 욕망을, 스스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중함을,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삶의 진정한 양식은 진지한 목표를 세워놓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대륙과 유럽을 연결하는 지중해를 향해 남동방향으로 1,200km로 뻗어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을 포함한 남부유럽의 반도국가로서 정식 명칭은 이탈리아 공화국(Republic of Italy)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상업을 중심으로 도시 문명이 발달하였다.

옛날의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했던 로마시대의 번영을 기억하게 한다.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가 이웃나라이다.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발칸반도와 남쪽에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북아프리카와 마주하고 있다. 많은 섬과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이 뻗어 형성된 장화 모양의 반도와 섬으로 구성된다.

2) 경 제

비해 산업발전이 늦었다. 1950년대 후에 급속한 발전으로 현재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주요 농작물로는 밀, 사탕무, 옥수수, 감자, 올리브, 와인 등이다. 이탈리아는 공업의 중심지로 황금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밀라노, 트라노, 제노바 일대의 북부지대에 밀집하여 있다. 철, 금속, 섬유, 화학, 전자, 자동차, 섬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북부와 남부의 경제수준 차이를 보여 남부에 수조의 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탈리아는 1980년 이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여 2009년 현재 세계GDP 9번째이다.

3) 종 교

로마 가톨릭교 76.3%, 이슬람교 6.3%, 개신교 2.9%, 기타 14.5%로 구성. 주요민족 이탈리아인 99.3%, 비 이탈리아인 0.7%, 그중 유럽인 0.3%, 아프리카인 0.2%, 아시아인 0.1%, 기타 0.1%로 구성된다.

4) 기 후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반도국으로 남과 북의 차이를 보인다. 여름은 두 지역 모두 덥지만 남부는 덥고 건조한 편이다. 북부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중남부와 섬은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는데, 여름에는 강우량의 양이 거의 없으나 겨울에는 강우량이 많다. 겨울에는 북부지역이 상당히 춥고,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디냐는 북부와는 달리 온화하다. 북부는 알프스산맥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남부는 지중해와 접하고 리구리아 해안은 산맥의 영향으로 따뜻한 기후를 보인다. 시칠리아 섬은 아프리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열대 기후로 여름철은 덥다.

5)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은 일찍이 마르코 폴로에 의해 고려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이며, 1884년 6월 26일 우호·통상·항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이탈리아와의 관계도 끊어졌다.

두 나라가 단독수교를 맺은 것은 1956년 11월 24일이며 상호 상주공관도 설치되었다. 이탈리아 주재 초대 한국대사는 김영기(金永琦)이고, 한국 주재 초대 이탈리아 대사는 스파라치이다. 통상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한국은 밀라노에 무역진흥공사 무역관을, 이탈리아는 서울에 대외무역공사 사무소를 각각 설치했다.

두 나라가 맺은 협정으로는 특허권·상표등록 협정(1961. 3), 무역협정(1965. 3), 문화협정(1970. 6), 과학기술협정(1984. 2) 등이 있고, 1986년 4월에 무역·기술 협력증진에 합의했다. 북한과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으나 1977년부터 무역대표부 상호설치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다.

나. 주요 문화 유적지

◆ 피렌체 ◆

피렌체는 '꽃의 도시'라는 뜻이다. 르네상스의 꽃이 핀 도시 피렌체는 두오모라고 불리는 꽃의 성모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마르티니의 작품을 소장하는 우피치 미술관도,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는 산 마르코 미술관 등 거리 전체가 미술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언덕의 다비드상

그리고, 수세기 동안 피렌체의 정치·사회적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카페 테라스가 있는 피렌체의 휴게장소인 시뇨리아 광장이 있다. 광장 부근 베키오 궁전에 있는 종루의 종은 시민들을 공공집회에 불러 모으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시뇨리아 광장에는 피렌체를 일으킨 코지모 데 메디치의 동상이 있고,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동상 《다비드》의 모조품과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의 청동상인 《첼리니의 페르세우스》, 잠볼로냐의 《장비나 여인의 약탈》 등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 모조품들이 있다.



다비드 상



첼리니의 페르세우스



사비나 여인의 약탈

그리고 피렌체에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자 예언자 또는 신앙인으로서, 박해를 가한 조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원불멸의 거작 《신곡 Divina Commedia》을 남겼고, 이것으로 중세의 정신을 종합하여 문예부흥의 선구자가 된 단테의 생가가 위치해 있기도 하다.

1) 피렌체 두오모 성당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두오모는 꽃의 산타 마리아 대성당(Santa Maria del Fiore)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한다. 피렌체 공화국과 길드가 함께 지은 것으로 1292년에 착공하여 1446년에 이르러 완공된 피렌체의 상징물이다. 106m의 높이인 대원개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에 의해 1437년에 완성되었는데 3만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이며 성당 왼쪽 입구에서 463계단을 올라가 대원개의 옥상에서 피렌체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대리석 모자이크 장식의 벽체는 장관을 연출하며, 내부는 전성기 고딕 아치형 천장이 아치들로 받쳐져 있는데 원개의 천장에는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심판"이 프레스코 형식으로 그려져 있고 제단 왼쪽으로는 그의 미완의大作인 "피에타"가 있었으며, 흰색과 핑크, 녹색의 대리석으로 된 외관은 장엄하면서도 꽃의 산타 마리아라는 명성에 걸 맞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피렌체 두오모 성당



성당 내부 천정화(최후의 심판)

2) 밀라노 대성당(두오모) 성당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화려한 밀라노 대성당은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고딕 양식의 걸작이고 밀라노의 상징이다. 1386년에 당시 밀라노 공국을 지배한 Gian Galeazzo Visconti의 명으로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400년이 지난 1809년 나폴레옹에 의해 길이 157m, 폭 92m 높이 108.5m의 성당으로 완공되었다. 이것은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 이어 세계 2번째의 규모를 자랑한다. 마치 숲을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고딕 양식에 135개나 되는 탑 하나 하나마다 성자 조각품을 올려놓아 그 수가 무려 2~3천 정도에 이른다.

※ *Duomo*는 이탈리아어로 대성당이란 뜻이며, 주교님이 있는 성당이라고 한다.

③ 스위스

아름다운 고도와 꽃으로 둘러
쌓인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

- 인 구 : 약 770만명
- 수 도 : 베른
- 면 적 : 41,285km²(한반도의 1/5)
- 주요언어 :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 통 화 : 스위스 프랑(유로)
-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



가. 일반현황

1) 개요

통상적으로는 스위스연방(Swiss Confederation)이라고 표현한다.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리히텐슈타인·오스트리아, 남쪽으로 이탈리아, 서쪽으로 프랑스에 접한다. 행정구역은 26개주(canton)로 이루어진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로 북서부에는 쥐라산맥, 그 옆으로는 제네바, 루체른, 취리히를 잇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진다. 알프스 산맥에는 몬테로사, 마터호른 등의 험준한 고봉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라인, 론, 다뉴브강의 발원이 되고 있다.

2) 경제

스위스는 국토가 좁은 데다 산이 많고 농지가 적으며, 지하자원 또한 거의 없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기계수출이 세계 3위 수준인데, 특히 정밀기계, 금속가공 기계, 발전 및 선박용 터빈, 인쇄 기기, 사진재료, 전자제품 및 의료 기기 제조 부문이 우수하며, 광학기기, 발전설비, 환경보전설비, 정밀측정기기의 제조도 뛰어나다. 특히 스위스의 시계 제조 기술은 매우 뛰어나 스위스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전 세계 고급시계 시장에 연간 약 1억개의 시계를 생산하며 95%를 수출한다.

국민총생산은 자본주의국가 중 상위그룹에 속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1,000달러 (2009년 추정치, 구매력평가(PPP) 기준)로 세계 5 ~ 6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높은 생산력은 근면한 국민성과 과학에 뒷받침된 높은 기술수준, 알프스의 관광자원, 금융·무역에서 볼 수 있는 약소국 생활의 지혜, 중립 정책에 따른 전시 낭비의 배제 등에 기인한다고 한다.

스위스의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공공, 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69.4%, 에너지, 건설 등 제조업이 29.1%, 농업 등 1차 산업이 1.5%로 구성되어 있다.

3) 기후

사계절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온화한 기후이다. 여름에는 건조하여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도 견딜만한 날씨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더워지는 경향이 있어 작년에는 이상 기후로 따뜻한 날이 많아 운영하지 않은 스키 코스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여행 시에는 알프스를 오르게 되므로 반드시 두터운 잠바를 준비해야 한다. 겨울에는 대체로 실내난방이 약하므로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과 스위스는 1962년 3월에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북한과는 1974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과 스위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배경으로 매해 교역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1993년에 8억 1천만 달러였던 교역액은 2008년에는 21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스위스 수출액은 3억 7,70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7억 6,5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3억 8,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TV, DVD Player), 반도체 및 전자 부품, 타이어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다.

4 프랑스

낭만과 예술의 나라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

- 인 구 : 약 6,406만명
- 수 도 : 파리
- 면 적 : 547,030km² (한반도의 2.5배)
- 주요언어 : 프랑스어
- 통 화 : 유로
- 시 차 : 한국보다 9시간 늦음



가. 일반현황

1) 개요

프랑스는 서독, 이탈리아 등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영국과는 해협을 끼고 마주 보는 유럽의 중심국이다. 프랑스인들은 신으로부터 비옥하고 다양한 대지와 평온한 기후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2/3가 평야이며,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스페인과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영국 해협과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쥐라, 보즈, 알프스 등의 산맥을 걸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악지대는 국경 일부분에 국한되고 국토의 대부분은 평야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또한 북해,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등 4개의 바다와 접해있는 프랑스는 5,500km²에 이르는 연안을 가지고 있다.

중세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12세기 초 LES CAPETINS 왕조로부터 시작되어, 16세기 까지는 LES BOURBONS 왕조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유적들도 부르봉 왕조시대에 건축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봉 왕조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몰락되고 말았으며 제 2의 전성시대인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파리 코뮌느, 양차 대전을 치룬 뒤 1958년 드골의 제 5공화국이 세워졌다

선주민은 켈트족이었으나 후에 로마인과 프랑크인이 들어와 켈트, 라틴, 게르만계의 혼합 족을 이루어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되었다. 전 인구의 7% 정도가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자국어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며, '에스까르고'라는 달팽이 요리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국기는 청, 백, 적색의 3색 기인데, 프랑스 혁명의 이상인 자유와 평등, 박애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잘 실행 되고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이다.

2) 경 제

19세기 대영제국과 함께 서양열강의 주축을 이루던 프랑스는 현재 EU국가 중의 하나이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총 도로 807,601km, 철로 34,469km로 각각 유럽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3) 기 후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다. 우리나라의 4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파리의 경우, 겨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습기 찬 날씨를 보이고, 반면에 여름에는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4)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는 1949년 정식 수교를 맺었다. 예술과 패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나라이다. 뛰어난 과학기술, 스포츠 강국으로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는 한편 전 세계에 만연된 미국문화로부터 가장 강하게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있을 만큼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나. 주요 문화 유적지

1) 루브르 박물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루브르궁전은 800년에 걸치는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중세의 성에서 프랑스의 역대 왕의 궁전까지, 혹은 200년 이후에는 미술관으로서의 그 건물양식이 발전해 왔다. 원래는 궁전으로서 중세부터 프랑스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국제적인 명성에 힘입어 궁전보다는 미술관으로서의

1793년에 프랑스 공화국에 의해 설립된 루브르미술관은 애슈몰린 미술관(Ashmolean Museum, 1683년)과 드레스덴 미술관(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1744년) 그리고 바티칸미술관(1744년)등으로 나열하며 유럽에서도 최대최고의 미술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루브르는 원래 미술관으로 사용될 계획은 아니었다고 한다. 마리 4세가 1671년에 그랜드 갤러리를 1층에 열었다. 미술과 예술품에 박식했던 그녀는 "고대의 방"과 왕의 덧상실과 왕의 회화실을 두었고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1747년 왕의 컬렉션들을 감상할 수 있는 "뮤즈의 궁전"으로 불리 우면서 박물관의 역할이 부각 되었다고 하니 그 옛 부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에는 페이가 설계한 유리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루브르를 대표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루브르의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가지 말하자면 다 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토라케의 "니케", 들라크르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등등 헤아릴 수 없는 유명한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유리 피라미드를 좀 더 지나면 1805년 나폴레옹의 승전을 기념하여 베니스에서 빼앗았다가 1815년 워터루 전투의 패배로 돌려준 산마르코의 네 마리 말들을 조각한 카루젤 개선문도 볼거리이다.

2) 개선문



지름 240m의 원형 광장에 서 있는 높이 50m의 건축물로 프랑스 역사 영광의 상징인 개선문(l'Arc de Triomphe)은 콩코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2.2km 거리에, 샹젤리제 거리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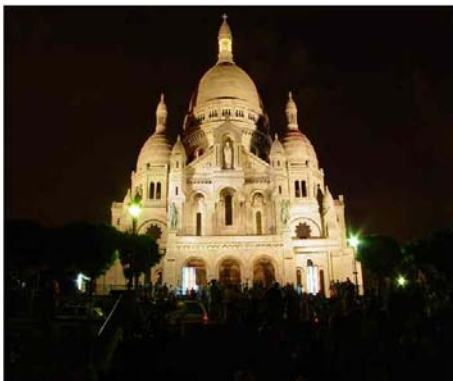
이 개선문과 그 주위를 둘러싼 샤를르 드골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샹제리제를 비롯해 12개의 대로가 이곳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광장이 에트왈(etoile: 별, 방사형의) 광장으로도 불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문은 1806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착공되었으나 그는 개선문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1920년 이래로 1차 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의 시신이 중앙 아치의 밑에 묻히게 되었고 매일 저녁 6시 30분에는 이 들을 기리기 위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2) 샹제리제 거리

샹제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Élysées)는 파리에서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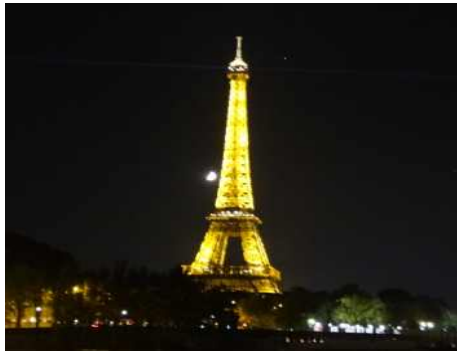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정면으로 있는 가장 큰 길이의 거리이다. 양쪽에 이름난 상점, 식당, 영화관, 여행사가 즐비하며 화려한 거리의 노상 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3) 성심성당 (La Basilique du Sacre-Coeur)



언덕의 정상 부분에 페르뜨르 광장과 베드로 성당 북쪽의 조금 낮은 쪽에 위치해 있다. 이 성당은 진정한 신이자 인간인 예수의 성심(聖心)에 바쳐진 교회당으로, 1885년부터 그 경배의 행렬이 밤낮으로 줄을 이어,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성당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4) 에펠탑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에 세운 높이 320.75m의 탑으로 구스타프 에펠이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상징이다. 탑 아래 위치한 샹 드 마르스 공원 왼쪽에는 나폴레옹의 유해가 있는 앵발리드, 그 근처에는 로댕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상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건너편 샹이오 박물관에서 보는 에펠탑의 야경은 장관이다.

5) 노트르담 대성당(Cathedral Notre Dame de Paris)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노트르담(Notre Dame)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위해 지어진 성당으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로 유명하다. 파리의 발상지인 시테섬의 동쪽 끝에 있는 파리의 상징적 건물로 1163년에 기공해 182년 만에 완성되었고, 800년의 프랑스 역사가 담겨 있다. 성당 내부에는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수많은 조각들이 있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4가지 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인 장미창이 유명하다.

2. 주 요 방 문 지

◀ 런던시청 ▶

템즈강변에 타워브릿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런던 시청은 아주 독특하다. 2002년 완공한 이 건물은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가 디자인한 건물로 마치 누에고치나 엄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높이 45미터 10층 규모로 얼른 봐서는 앞뒤도 없는 것 같으나 친환경 건물로 설계되었다.

현대적인 건물일수록 창문을 열지 않은 구조이나 이 건물은 창을 열어 환기시킴으로서 냉방비를 거의 안들이고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있어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서 필요한 에너지의 70%를 충당한다고 한다.



< 런던시청 내부 >



< 런던시청
건물모습 >

◀ 영국 박물관(대영박물관) ▶

흔히 대영박물관이라 불리는 박물관으로 영어 이름은 'british museum'이다. 영국박물관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만들었다. 유럽 최초의 박물관으로, 왕실 의사인 한스 슬론(hans sloane)이 평생 수집한 유물 7~8만 점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1753년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영국박물관은 왕실이나, 성당에 소속되지 않은, 주제도 따로 없는 최초의 박물관이었다. 박물관이 생기기전까지는 책이나 소중한 유물은 모두 '왕의 은혜'나 '신의 은혜'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열람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데, 영국 박물관이 생긴 뒤로 '없는 게 없는, 모두에게 열린박물관'이라는 공공 박물관의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18세기 이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약소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약탈과 수집한 진귀한 문화재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19세기 초반 넘쳐나는 유물과 방문객을 위해 공간을 넓힐 수밖에 없었고 그때 지어진 것이 현재 영국 박물관의 상징인 파르테논식 건물이다. 그 뒤로도 방문객과 유물 전시를 위해 건물을 넓혔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우리 한국관도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한국 도자기와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런 세계적인 박물관에 우리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데 자부심이 들기도 했다.



< 영국박물관 >



< 박물관 내 한국전시관 >

◀ 로마 시청 ▶

roma를 거꾸로 하면 amor! 사랑의 도시 '로마'는 한마디의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도시이다.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관광객들에게는 소매치기와 줌도둑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는 군사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神)인 마르스와 인간인 레아실비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레무스(REMUS)와 레물루스(ROMULUS)에 의해서 건국 되었다고 한다. 태어난 후 테베레강에 버려진 쌍둥이 형제를 암 늑대가 젖으로 키웠다고 전해지며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와 같은 로마를 세운 시조로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이다.

테베레강 하류에 접해 있으며 대부분이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원의 도시'이다. 이탈리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며 특히 바티칸은 카톨릭의 총본산으로 카톨릭과 관계된 국제적인 연구·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로마의 주요산업은 관광업으로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였다.



< 로마시청 >



< 로마시 의회 >

◀ 스위스 베른주 운터젠시청 ▶

❖ 일반현황



운터젠시 인구는 5,462명, 면적은 14.1km²이다. 뵈델리(Bödeli) 유역의 아레(Aare)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567m에 위치해 있다. 툰호(Lake Thun)와 브리엔츠호(Lake Brienz) 사이에 있다. 'Unterseen'이라는 이름은 중세시대에 독일어로 'between(사이)'을 뜻하는 'unter'와 'lake(호수)'를 뜻하는 'seen'이 합한 것이다. 1279년 7월 13일 합스부르크왕가의 루돌프 1세가 에센바흐-오버호펜(Eschenbach-Oberhofen)의 백작 베르히톨트 3세(Berchtold III)에게 두 호수 사이의 요새 건설을 허락하였다.

인터라켄수도원과 갈등이 많았으며 일찍이 베른 지역의 세력에 의지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인터라켄 수도원에 반기를 들었고 그 공으로 세피넨 초지(Alp Sefinen)를 보상으로 받았다. 1470년 화재로 큰 해를 입었고 베른 지역이 운터젠 중심부 건물을 복구해주었다. 고도가 높아 '알프스 3봉(峰)'인 아이거산(Eiger:3,970), 뮌히봉 (Mönch:4,099m), 융프라우산(Jungfrau:4,158)의 웅장한 경관이 바라보인다.

의회에는 7명의 의원들이 재정, 의회, 사회복지, 건축, 기획, 보안,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를 담당하는 의원이 선출되어 있다. 운터젠 시청에서는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읍면과 비슷한 규모라고 한다. 시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네 행정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와 다른 업무

- 외국인 비자발급 업무
: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에서 시행
- 애견관리 업무 : 우리나라는 아직 미 시행
- 자치경찰제 시행
- 도시계획(우리는 시에서 시행)

< 운터젠시 시의회 의원 >



< 운터젠시 시몬마고트 (Simon Margot) 시장으로 부터 시정현황 청취 >



< 운터젠시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 >



< 운터젠시 기획사업 및 관광산업에 대한 설명 청취 >

◀ 마른느 라 발레(Marne-La-Vallee)시 ▶

마른느 라 발레시는 파리시 도심 동측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리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1969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된 신도시 5개 중 하나의 시이다. 면적은 149.7km²로 파리의 1.5배이며 인구는 33만명이다. 마른나 발레시의 도시개발은 기존 취락지구의 재개발과 신시가지 개발방식의 병행 개발을 시도하여 주거지역과 자연의 접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녹지로 분리된 4개의 도시 단위로 구획계획 원칙에 따라 마른계곡과 페리에 숲의 자연지역을 보전하며, 스웨덴의 신도시 모델의 영향을 받아 마른강 남쪽, A4 고속도로와 77년 개통된 RER A선을 따라 일자형 선형구조로 계획되었다.

마른느 라 발레의 도시 개발계획은 4구역으로 개발 되었다.

- 1) 1구역(Porte de Paris) : 파리 교외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고밀개발된 중심상업지역
- 2) 2구역(Val Maubuee) : 단독, 공동주택이 혼합된 주거전용지역과 대학 및 연구시설이 밀집한 데카르트 단지로 구성
- 3) 3구역(Val de Bussy) : 저밀도 개발
- 4) 4구역(Val d'Europe) : 최근에 유로 디즈니랜드가 건설, 성장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택유형은 공동주택이 54%로 단독보다 많으며, 전체주택 중 43%가 임대주택이며, 이중 26%가 사회임대주택(HLM)임



< 마른느 라 발레시 지도 >

◀ 마른느 라 발레(Marne-La-Vallee)시 하수처리장 ▶

시암(Siam) 하수처리 조합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은 세계 물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인 베올리아워터(Veolia Water)라는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한다.

하수처리장 현황

- 처리 용량 : 하루 38톤의 하수(공업, 생활하수) 처리
- 하수처리 완료 시간 : 하수 유입 후 슬러지 처리까지 2시간 30분
- 처리 방식 : 스티로폼을 이용한 박테리아 투입방식
- 슬러지 처리 :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공급



<마른느 라 발레시 하수처리장에서>



< 어린이를 위한 교육자료 >



< 하수처리장과정 설명 청취 >

◀ 파리국립 도서관 ▶

도서관 도시 구미가 세계적인 도서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파리 국립도서관을 찾았다. 파리국립도서관은 규모만큼이나 테러에 대비하여 삼엄한 경비와 검문검색으로 방문하는데 긴장을 잔뜩 하도록 만들었다.

안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규모나 열람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파리국립도서관은 책 네 권을 각각 반쯤 펼쳐놓은 모양의 파리 “미테랑 도서관”. 프랑스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시기에 역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을 남기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건축물은 파리를 21세기 알렉산드리아로 만들려 했던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and) 대통령의 야심찬 기획으로 그의 이름 딴 미테랑 도서관으로 불리는 파리국립도서관이다.

<파리국립도서관 현황>

파리 국립도서관(BNF/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파리 미테랑 도서관

주 소 : 11. Quai Francois Mauriac 75013 Paris

휴 관 일 : 월요일 및 공휴일

개관시간 : 화 ~ 토요일/ 10시~20시. 일요일 12시~19시

공식방문 : 화, 금만 가능

상주직원 : 2천명

문화부, 교육부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용역서비스 담당자들 이라고 한다.

2층과 3층의 열람실에는 1,500만권의 도서와 3,000만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장서로는 세계2위라고 한다. 그리고, 책, 지도, 사본, 그림, 정기간행물, 악보와 음반 등을 포함한 100만개 이상의 작업물을 디지털화 해 이것들을 갈리카의 웹 플랫폼(gallica.bnf.fr)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1층은 연구진들을 위한 종합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계단은 친환경 소재의 나무계단이며, 도서관 입구는 지하철 입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3유로 또는 1년에 30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학생과 16세~25세의 이용자는 할인 혜택(15유로)을 받는다. 도서관 이용권을 구입할 경우 도서관내 모든 시설의 무료이용과 각종 전시회에 무료로 입장 할 수 있다. 또한 석사열람실, 박사열람실이 따로 있다. 열람실 좌석은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다.

네 개의 유리타워 한가운데는 12,000m²의 오크나무 숲 정원이 숨겨져 있어 도서관에서 유리문을 타고 이 나무들을 바라 볼 수 있다. 카페와 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모더니즘하면서도 클래식한 미테랑 도서관은 프랑스 교육의 중심이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테랑도서관 전경>



<미테랑도서관모형도>



<열람실>



<파리국립도서관 관계자 설명청취>



<북도에 마련된 CD 감상실>



< 도서 검색대 >



< 층별 안내도 >



< 기획 전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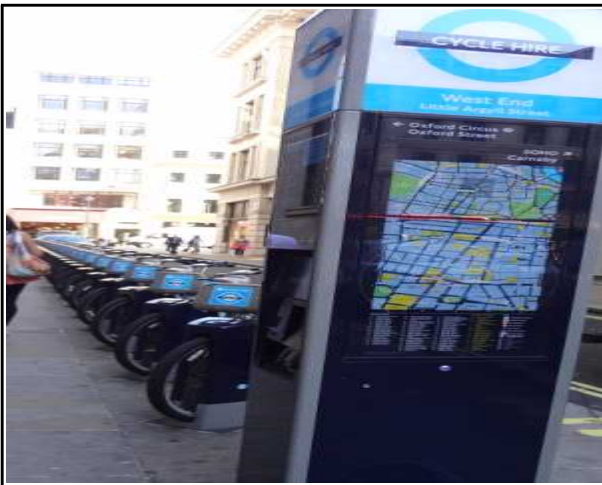
3. 분야별 벤치마킹

◀ 자전거 정책 분야 ▶

무인 공영 자전거대여 시스템

○ 런던의 무인 공영 자전거대여 시스템

- 2010. 7월부터 교통 혼잡문제 해소 및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무인 공영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도심 400여 곳의 대여소에 6,000여대의 자전거를 비치 운영



영국 런던 무인대여 자전거 정류소



영국 런던 무인자전거 시스템

○ 이탈리아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



이탈리아 밀라노 무인대여 자전거 정류소



이탈리아 밀라노 무인자전거 시스템

○ 파리의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벨리브/Velib)

- 2007. 7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무인대여 자전거 시스템 도입
- 연간 29유로(한화 약43,500원) 납부시 매번 이용시 30분 무료
- 사용 후 30분 이내 다른 대여소에 반납 가능
- 연중 24시간 이용, 270m 간격 설치/1,450개소/20,600대 설치
- 20만명의 연간회원 보유, 하루평균 이용횟수 12만번
- 버스 전용차로와 자전거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 많음



파리 무인대여 자전거(벨리브/Velib)



파리 무인대여 자전거(벨리브/Velib)



파리 자전거 전용 건널목



도로변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도로



< 자전거 및 문화재 관리 분야 토론회 장면 >

⇒ 구미시 공용자전거 운영 시스템

우리시의 경우 관내 28개소에 270대의 공용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장소는 읍 2개소, 면(도개, 해평), 동지역 20개소 (선주원남동 2) 금오천 주차장과 동락공원, 대학교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스템은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 후 이용이 끝나면 인근대여소에 반납이 가능한 유인 대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구미시 도입 검토 방안

우리 구미시는 인구밀도나 현재 갖춰진 자전거 도로망으로는 런던이나, 파리처럼 무인대여 시스템의 운영이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으며, 유럽에서처럼 개인중심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생활화 하고 차량운전자가 자전거나 오토바이에게 양보하는 선진교통 문화가 형성되면 자전거로 시내를 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또한 시스템 운영비용의 문제가 따른다.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우리시의 사정으로 무인 대여 시스템은 그다지 도입할 만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런던이나 파리처럼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해서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또 자전거 우선통행을 주는 등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 문화로에 도입 가능한 문화 ▶

○ 시민들의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한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



- 이탈리아 거리 음악대 공연

로마 시청에서 콜로세움 가는 길에 만난 거리 음악대는 마치 서울의 홍대 거리를 연상케 하며 지나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음악을 선사 했다.



- 트레비 분수 앞 퍼포먼스 인물 배치

각종 동상을 본 따 만든 옷과 분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과 사진을 같이 찍어 주고 1유로씩 받고 있었다

○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

- 스위스 시가지 건물 곳곳에 예쁘게 단장된 화분들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상징물을 도로바닥에 조각하다

- 로마 거리에 로마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늑대의 젖을 먹는 쌍둥이의 그림이 타일로 장식돼 로마의 상징을 말해 주고 있었다.

□ 우리시 도입 방안

⇒ 문화로에 시민들이 봄비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까지 구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활용하여 음악과 예술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공연과 퍼포먼스를 하면 색다른 볼거리 제공과 구미의 명물거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문화로 주변 상점에도 시 차원에서 꽃이 있는 문화로 거리를 만들면 또 하나의 명물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구미의 상징인 삼죽오 형상이나 문형을 문화로 공원에 배치하여도 될 것이다.

◀ 하수처리장 운영 분야 ▶

○ 마른나 발레시의 하수슬러지 비료화 시스템

- 방문지의 도입이유

- *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 또는 소각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하수 슬러지의 비료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 관리되어야 할 폐기물 정책은 도시 성장과 폐수처리 공장의 확산으로 슬러지 생산량이 매년 증가 하고 있음.

프랑스는 액체슬러지 처리량이 매년 2억톤임

- 프랑스의 슬러지 처리 솔루션

- * 농업재활용 : 식물의 영양소로 활용하고 화학비료의 량을 줄이고 부족한 비료 보충
- * 에너지로 복구 : 무산소 분해를 통하여 가스로 재생산하여 쓰레기 소각에 활용
- * 소각처리 : 공동소각 또는 소각

- 현재 우리시 하수처리장 처리방식

- * 오우델 처리(Odour Treatment)

침전된 하수에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로 인한 냄새가 심하므로 전자코(Electronic Nose)라는 악취제어기술을 통해 냄새를 줄이면서 인체에 해로운 독소를 제거한다.

* 슬러지 탈수처리(Sludge Dewatering)

탈수과정을 거친 슬러지는 전량 파리 인근의 농지에 재 투입되어
비료로 활용되고 있다.

⇒ 기술개발을 통한 처리방식 도입

- * 하수처리에 저마다의 특허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독소를 제거하고 유기화합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슬러지의
비료화가 요구됨
- * 현재 슬러지 소각방식은 제2의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이나 도입을 검토



< 단계별 하수처리 방법 설명청취 >



< 하수처리장 내부 설명 >



< 1단계 처리방식 설명청취 >



< 슬러지 처리장 견학 >

◀ 교통 및 도시경관 분야 ▶

○ 영국의 도로표지 및 교통정책

영국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 개인교통수단 보다는 대중교통을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좁은 차도에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설치하여 버스와 택시의 운행을 원활히 하고 있었다.

또한 건물목 앞에 도로에 지그재그의 노면표시로 서행을 유도 하고 있었다.



< 버스전용차로 >



< 건물목 앞 서행노면 표지 >

○ 도로변 버스 승차권 자동판매기 설치



버스 승강장에 마련된 승차권 자동 판매기로 런던의 여러군데 설치되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우리는 BIS시스템과 교통카드사용제와 무료환승제도를 이미 시행 하고 있어 대중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가는 것 같아 자부심도 들었다.

○ 프랑스 도시디자인 분야

- 건물 간판 규제 정책

프랑스 파리에선 2층 이상의 높이에서는 좀처럼 옥외 간판을 찾기가 힘들다. 이는 파리의 도시디자인 정책을 말해 주고 있는데 건물의 미관을 최대한 살리고 도시 전체의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점이 눈에 띄었다. 우리 구미시도 색채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서 간판이나, 건물의 외벽 색채 부분에 대한 규제를 시도 하고 있긴 하다.

프랑스처럼 특색 있는 도시경관 수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간판을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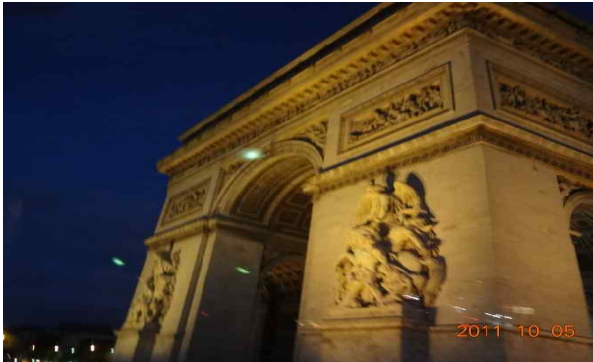
< 프랑스 거리 상점의 간판 모습들 >

- 야간경관 분야

* 프랑스 파리의 야간경관정책

도시 전체의 야간조명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에 대한 연속성과 조화로우며 피해 정체성과 지역성을 표현하였고, 도시 내부의 각 구역의 특성을 살려 야간경관을 계획하였다. 일례로 샹젤리제 거리의 조명개발은 샹젤리제 거리의 명성과 역사적·상징적, 나아가서 정감적인 위상을 고려하여 인도와 가로등 등을 디자인 하였다.

또한 세느강 좌안 합의를개발지구의 야간경관은 다양성과 율동에 초점이 맞춰져 다양한 기능을 지닌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건물들(재무성 건물, Bercy 실내체육관, 국립도서관 등)과 도시기반시설들(오스테를리츠역, 지하철, 자동화지하철, 지하철 고가선, 교량 등)의 존재로 빛어지는 이 지역의 변화와 활력을 다양한 조명 방식과 유형의 채택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율동감은 세느 강물에 비쳐 도시 야간경관을 훨씬 아름답게 하고 있었다.



< 건물 야간경관 >



< 에펠탑 야간경관 >



< 교량 야간경관 >

⇒ 도시디자인분야의 간판규제 및 야간조명 통일

- * 우리시도 시가지 간판에 대해 통일성을 피하여 무분별하게 달려진 간판을 정비하고, 네온사인, 야간 조명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 야간 경관 정책의 개발이 요구됨.

Ⅲ. 결 론

어려운 지역경기와 일부 타 지역 해외 연수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우리 보다 앞선 선진국을 돌아보는 연수과정을 통해서 시정 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우리 연수단은 7박 9일의 일정으로 서유럽 연수길에 올랐다.

생생한 현지방문, 체험위주의 일정을 통해 선진국 시민들의 현지 모습을 알고자 많은 곳을 찾았으며, 연수 기간 중 자전거 정책, 하수처리시설, 도시경관 분야, 시설물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많은 현장을 방문하였다.

100년 넘게 전문가들이 마련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정신과 개념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파리는 도시계획가, 조경전문가, 건축가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가꾸어진 도시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파리의 도시계획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 기능을 수용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에 따라 치밀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본 계획이 바뀌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한다.

특히 파리의 도시 계획은 천년을 내다보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며 이들이 항상 고전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도시기능과 미를 염두에 두며 철학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모습이 본받을 만했다. 이런 부러운 이유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파리로 끌어들이고 있었으며 덩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석조 문화가 발달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과거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오늘날 건축물 하나하나에도 중·개축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었다. 또 도심속에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한 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몫 하는 것 같았다. 이 여유로움은 버스나 공원 벤치 등 곳곳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들 속에서 감춤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척박한 자연 환경인 산지를 개발하여 초지를 만들고 만년설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만든 스위스 인들, 이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부국이 된 것은 비슷한 처지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모습이었다.

이번 서유럽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유한 이곳 현지 국민들의 대부분이 소형차를 이용하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제목처럼 우리 연수단은 서유럽 4개국을 보고 느낀 것을 접목시켜 우리 구미시가 선진 도시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IV. 수집자료

◀ 수 집 자 료 ▶

- 스위스 운터젠시청 제공자료
- 마른느 라발레시 하수처리장 제공자료
- 파리국립도서관 제공자료